

16~17世紀 邑誌의 編纂背景과 그 性格

楊 普 景*

《目 次》

- | | |
|------------------------|-------------------|
| 1. 序言 | 4. 16~17世紀 邑誌의 體制 |
| 2. 私撰邑誌編纂의 背景 | 5. 16~17世紀 邑誌의 性格 |
| 3. 16~17世紀 邑誌의 分布 및 系統 | 6. 結 言 |

1. 序 言

朝鮮朝에는 세종·성종대에 일련의 전국 지리지 편찬이 이룩된 후 많은 地理書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지리지들 가운데 地理志들은 국가의 中央集權化 과정과 관련되어 국가 統治力의 강화와 地方實情의 파악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들이었다. 조선 초기에 진행된 국가 주도의 地理志 편찬 사업, 즉 <慶尙道地理志>—<新撰八道地理志>—<世宗實錄地理志>와 成宗대에 결실을 보는 <慶尙道續撰地理志>—<八道地理志>—<東國輿地勝覽>들은 위와 같은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몇몇 논고가 있어¹⁾ 참고가 된다.

16세기 이후가 되면 地理志 편찬양식에 변화가 보인다. 全國的인 地理志의 편찬대신에 각 邑 단위로 守令이 中心이 되어 有力한 在地士族과 함께 편찬하는 이른바 私撰邑誌가 등장하게 된다²⁾. 이어서 18세기 이후가 되면 朝令에 따라 官 주도하에 각 邑 단위로 작성하는 이른바 官撰邑誌도 또한 널리 작성되게 된다. 이와같이 각 邑 단위로 작성되는 邑誌들은 全國地理志인 統志에 비해 그 내용이 상세하고 풍부하며 또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조에 편찬된 官撰 및 私撰邑誌 중에서 現存하는 것은 약 2,000여종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各邑別로 독자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편찬된 私撰邑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기는 16~17 세기에 한정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私撰邑誌의 편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邑誌의 성격도 뚜렷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에 작성되는 私撰 및 官撰邑誌들이 대체로 이들 읍지들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므로 16~17세기 읍지 편찬에 대한 파악은 조선시대 지리지의 성격을 이해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16~17세기에 私撰邑誌가 편찬되기 시작하는 背景과 읍지가 작성되는 지역적인 分布, 그리고 邑誌들의 체제 및 內容의 變化過程을 社會적인 변동과 연결시켜 봄으로써 이들 읍지들이 가지는 性格과 읍지 편찬의 의의를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2. 私撰邑誌編纂의 背景

조선 왕조의 성립과 함께 중앙집권제의 강화 노력에 따라 太宗代에는 郡縣制의 대개편이 실

* 서울大 社會大 講師

1) 全相運, 1966, “李朝初期의 地理學과 地圖,” 古文化, 4, pp. 1-16.
 李 燦, 1968,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 III(科學技術史), pp. 681-734.
 李泰鎮, 1979, “《東國輿地勝覽》편찬의 歷史의 性格,” 震檀學報 46·47合輯, pp. 252-258.
 鄭杜熙, 1976,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I)(II),” 歷史學報, 69·70輯.
 盧道陽, 1980, “韓國의 地誌編纂史,” 韓國地誌, 建設部 國立地理院, pp. 77-106.
 2) 韓永愚, 1981, 朝鮮前期史學史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에 의하면 歷史書의 편찬도 15세기 조선초기에는 官撰史書가 성행하고 16세기에는 私撰에 의한 史書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연구되어 地理書와 歷史書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되고 각읍에 모두 수령이 파견된다.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이와같은 지방제도의 개편, 안정된 왕권 및 문물제도의 정비 위에서 지방실정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와같은 지방실정의 파악은 중앙집권화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지리지 편찬에 반영되어 世宗代에 편찬된 지리지들 즉 <慶尙道地理志>, <新撰八道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는 지방행정의 파악에 유리한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戶口·田結·土地肥瘠·土宜·土貢·風氣·租稅輸納 등 경제적인 면, 郡縣離合·鄉所部曲·越境處 등 행정적인 면, 城郭·險阻·關防·烽火·軍丁·鎭·營 등 군사적인 면등에 지리지의 중점이 두어졌다³⁾. 이러한 사실은 世宗 28年(丙寅) 7月 戊辰에 成均注簿 李甫欽이 地理誌를 상고하여 土地의 等級을 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데서도⁴⁾ 확인된다.

成宗代에 완성된 <東國輿地勝覽>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集成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人物·禮俗·詩文 등의 항목이 보강된 대신 실제 지방통치에 필요한 내용이 소략해진다. 특히 經濟·軍事·行政관계의 내용이 제외되는 점이 눈에 띈다⁵⁾.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지금까지 몇가지 원인이 제시되어 왔다. 즉 <東國輿地勝覽>이 中國의 지리지인 <大明一統志>와 <方輿勝覽>의 체제를 모방한 때문이며, <勝覽>이 당시 사회의 土地·貢法체제의 문란과 해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安定된 王朝에 王權의 威勢를 과시하며 중앙관계에 진출한 執權層들이 人物조를 통해 名族의식을 고양하려 하는데 강조가 두어졌기 때문이라고⁶⁾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地理志 내용의 이러한 전환은 또 다른 측면, 즉 中國과의 對外關係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中國의 使臣들은 조선에 왕래하면서 자주 地理志나 地圖를 요구하여

<表 1> <世宗實錄地理志>와 <東國輿地勝覽>의 項目 비교

分類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
行政關係	官職, 所領, 越境處, 鄉所部曲, 海島	郡名
經濟·財政·政관계	貢稅, 賦稅, 戶口, 墾田, 土貢, 藥材, 堤堰, 漁梁, 鹽所, 磁器所, 陶器所, 土地肥瘠	倉庫
軍事관계	牧場, 鎭(軍官·守城軍), 軍丁, 水營(兵船, 船軍), 木柵, 險阻要害	關防
社會·人物·禮俗·관계	行祭所, 靈異	學校, 宮室, 古跡, 題詠, 院宇, 名宦, 寓居, 孝子, 烈女
自然環境·관계	溫泉, 風穴, 氷穴, 土質, 風氣, 土宜	形勝

註) 서로 상이한 項目만 표시하였음.

조선의 실정과 산물을 파악하려 하였다. 일례로 <東國輿地勝覽>이 新增된지 6年後인 1537年(中宗 32)에 中國 使臣들은 中宗에게 地誌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⁷⁾. 당시 中國의 사신들이 地誌를 보고자 하는 목적을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天使가 우리나라의 土地의 廣狹, 道里의 遠近, 山川의 이름, 風俗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여 적어 보내라고 함에 이름하기를 地誌라 하였다”⁸⁾.

라고 하여 조선의 土地廣狹, 道理遠近, 山川之名, 風俗之美를 알고자 하였던 것이다. 使臣의 이와같은 요구에 대해 조선측은 抄錄을 작성하여 보냄으로써 그들의 요구에 응하려 하였다.

“中國의 兩使臣이 또 地誌를 보고자 함에

3) 鄭杜熙, 전계논문(1)에 編目에 대한 비교가 상세하게 되어 있다.

4) 世宗實錄, 卷 113, 28年, 7月, 丁卯.

5) <東國輿地勝覽>은 세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中宗 25年에 新增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이 현재 전하고 있다. 여기서 비교한 내용도 新增本이 대상이 되었다. 이하 <新增東國輿地勝覽>은 <勝覽>으로 약칭하였다.

6) 李泰鎭, 전계서, p. 257.

7) 中宗實錄, 卷 84, 32年, 3月, 丁酉. 傳曰 昨日天回程時 請於予曰 地志速書送之云.

8) 中宗實錄, 卷 84, 32年, 4月, 甲子.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地誌가 비록 있으나 불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抄錄하여 올리겠다’고 하셨다. 이에 兩使臣이 答하기를 ‘우리들은 다만 한번 보고자 할 뿐이니 抄할 필요는 없습니다. 本冊을 보고자 합니다’. 應星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地誌를 刊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副使가 말하기를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中國의 內閣에 天下外府의 誌書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어찌 조선에만 없겠는가.’⁹⁾라 하여 中國의 使臣들은 抄錄이 아니라 本冊을 보고자 하였다. 또한

“都承旨 李名珪가 太平館 宴會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副使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조선 종이의 품질이 극히 좋아서 반드시 훌륭한 書冊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書冊은 비록 받더라도 清廉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니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이에 임금께서는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구하는 書冊인 四書五經 및 東國地誌를 속히 갖추어 보내주도록 하라고 분부하셨다.”¹⁰⁾

라 하여 地誌에 대한 관심은 仁宗조에도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사신들은 여타의 관례적인 贈與物은 물리치면서 <東國地誌>만은 구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만약 <勝覽>과 같이 널리 인출되고 반포된 책에 貢物·戶口·田結·土地肥瘠·陶磁器產地 등을 상세히 기록할 경우 중국과의 朝貢關係上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6세기에 金·銀·鐵 등을 중국에 潛賣하는 것을 嚴禁하고 있는 것도 同一한 이유에서이다. 中宗 12年(1517)에 執義 柳灌이

“우리나라는 이전에 金銀을 중국에 貢物로 바쳤으나 이제 朝貢하지 않는 것은 產出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金銀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金銀을 朝貢하던 때보다 많습니다. 비록 禁하는 법이 있지

만 시행되지 않으니 후에 반드시 金銀을 貢物로 바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폐단을 예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¹¹⁾

라 하여 조선의 金銀이 中國에 流出됨에 따라 다시 朝貢物로 책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20여년 후에 赴京使行員인 張孝禮가 金銀을 가지고 中國에 가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다. 조정에서는 張孝禮를 처단하는 문제로 약 6개월 동안 논란이 벌어지는데 金銀潛賣 문제를 이처럼 심각하게 다루는 것도 조공품으로 새로이 책정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 연유한 것이다.

즉 金銀이 중국에 潛出되어 중국 조정에 알려지면 세종대 이후 지금까지 貢物에서 면제되어 왔던 관례를 깨고 새로이 징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의 비중이 변한 배경에는 이러한 실리적인 입장이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勝覽>은 외형적으로는 <大明一統志>와 <方輿勝覽>등 中國, 地理志 체제를 표방하면서 그 기저에는 중국에 대한 朝貢 관계에서 오는 현실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깊게 깔려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世宗代 지리지에서 <勝覽>으로의 편찬 양식의 변화 배경에는 國益을 의식한 實利的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勝覽> 체제의 변천은 동시에 統志가 지니는 한계점을 노출시키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16세기 이후 몇차례 士禍를 거치면서 등장한 士林세력들은 그들이 理想으로 하는 이른바 道學政治를 지방 통치에 구현하기 위해서 당시 통치 질서문란의 근간이 되고 있는 戶口·田結·軍額·貢賦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었다. 이처럼 구체적

9) 中宗實錄, 卷 90, 34年, 4月, 庚戌.

10) 仁宗實錄, 卷 2, 元年, 5月, 辛酉.

11) 中宗實錄, 卷 29, 12年, 8月, 辛酉.

執義柳灌曰… 我國古貢金銀於中國 而今不貢者 以無產也 今挾持金銀入於中國者 多於貢金銀之時 雖有禁挾之法 不舉而加以通事 多有挾持者 後必貢金銀之時 此不可不慮 而預防其弊也.

인 統治資料의 성격을 지닌 지리서에 대한 요망이 증대될 때 〈勝覽〉이 지니고 있는 한계는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통치자로 임명되면서 오랫동안 在野에서 익혀 왔던 修己治人의 이념을 지방사회에 현실화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16세기 守令의 탐학에 의한 정치질서의 문란 및 그에 따른 賦役의 不均衡, 防納의 폐단, 軍政의 문란, 公私債의 부담 등으로 사회의 피폐가 심해지던 현실에서 民生의 安定을 중요시하던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실현시킬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6세기에 邑宰中心으로 私撰邑誌가 편찬되는 현상은 16세기 사회의 이와같은 여러 현상과 사회질서의 문란을 바로잡아 보려는 의도, 그리고 전국지리지의 지닌 統志로서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16~17世紀 邑誌의 分布 및 系統

읍단위 지리서인 邑誌는 이미 조선초기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조선초기에 있었던 일련의 전국지리지 편찬사업 과정에서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16~17世紀 邑誌에서 간혹 인용되고 있는 古記나 州記 등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832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慶尙道邑誌〉¹²⁾ 중 榮州郡邑誌의 「古跡」조에 奈小里部曲에 대한 기술을 하면서 “鄭從韶가 守令으로 있을 당시 郡誌를 作成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 同書 「宦蹟」조를 참고하여 보면 鄭從韶가 守令으로 부임한 시기는 世祖年間(1457~1464사이)임을 알 수 있다. 당시는 〈慶尙道續撰地理誌〉 편찬 명령이 하달되었던 시기이므로 이때의 “郡誌”라는 것이 〈慶尙道續撰地理誌〉의 편찬을 위한 저본으로 작성된 邑誌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邑誌들은 〈慶尙道地理志〉의 13規式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일정한 체제와 양식하에

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작성되는 이른바 官撰邑誌로서 刊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간략한 형태이었을 것이다.

또한 비록 이처럼 체계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지방 관아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鄉吏들도 그 지방에 대한 여러 종류의 기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三陟의 邑誌인 〈陟州志〉를 작성한 과정을 許穆은 序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余於元年十月來守是府 每以公事之暇日 訪父老傳說 又得老吏金充植金榮鸞私藏雜記古事 參以輿覽誌”¹³⁾

즉 老吏들이 소장하고 있던 雜記·古事와 父老들의 傳說 및 輿地勝覽을 참고해서 읍지를 편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방 내의 기록류들을 기초로 하면서 守令中心으로 개별적인 이른바 私撰邑誌가 작성되는 것은 16世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官撰邑誌가 編目설정이나 記錄對象등 체제·양식이 통일되어 전국적으로 同一時期에 일괄적으로 작성되며 국가의 통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던 반면, 이들 私撰邑誌들은 後述하듯이 守令이 地方統治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하거나 在地土族들의 지위를 顯揚시키고자 하는 의도, 변방지방과 같은 군사요충지의 군사상 중요성등 편찬자의 개별적인 目的과 필요성이 읍지 편찬에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내용의 기술 방식이나 편목 설정 등에서 撰者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며, 개별적이며 독자적으로 읍지가 작성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現傳하는 16~17世紀의 邑誌들은 전국에 걸쳐 分布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상도 지역의 읍지가 가장 많이 남아 있어 이 지역에서 읍지 편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 지방에서 편찬된 읍지로는 〈威州志〉(威安), 〈永嘉志〉(安東), 〈東萊誌〉(東萊), 〈商山志〉(尙州), 〈一善誌〉(善山), 〈晉陽志〉(晉州), 〈天嶺

12) 奎章閣所藏, 第14冊.

13) 〈陟州志〉, 許穆序, 奎章閣所藏.

또한 〈威州志〉(威安)의 「任官題名記序」에도 自古郡無先生案 “但吏等竊錄姓名 藏於郡司 間者爲惡少所竊去 有一吏名國保 年踰八十 父子相繼錄 私相傳云”이라 하여 「先生案」을 鄉吏들이 작성하여 전해오고 있는 것을 취해 읍지에 수록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誌)〈咸陽〉, 〈東京雜記〉(慶州) 등이 傳한다¹⁴⁾. 1587年 咸安에 부임한 鄭述는 지방 사족들과 더불어 〈咸州志〉를 편찬하였다¹⁵⁾. 寒岡 鄭述(1543~1620)는 그가 莅政하는 지역마다 읍지를 편찬하였다 한다¹⁶⁾. 〈咸州志〉외에도 그는 江陵·昌寧·同福 및 通川·忠州 등¹⁷⁾ 지역에서 읍지를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하지 않고 있다. 또 그는 安東의 〈永嘉志〉 편찬에도 깊이 관여하여¹⁸⁾ 읍지 편찬에 그가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寒岡은 金宏弼의 外曾孫으로서 退溪 및 南冥, 그리고 南冥의 제자인 吳健의 門下에서 受學하여¹⁹⁾ 性理學에 뛰어난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地理 부문에도 통달하고 있었으며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의 제자들 중에도 지리에 뛰어난 지식의 지닌 사람이 많았는데 桐溪 鄭繼, 眉叟 許穆 등이 대표적인 人物이다. 許穆(1595~1682)은 1660年(顯宗 元年) 1次禮訟으로 南人이 숙청될 당시에 강원도 삼척부사로 좌천, 1662年에 〈陟州志〉를 편찬하였으며 〈咸安志提要〉, 〈宜春志提要〉를 찬집, 寒岡의 邑誌 편찬 맥락을 계승하였다.

退溪의 門人인 西厓 柳成龍(1542~1607)은 壬亂을 겪고난 후 安東의 邑誌인 〈永嘉志〉를 편찬할 것을 제자인 權紀에게 명하였다. 〈永嘉志〉의 편찬은 西厓의 서거로 일시 중단되나 마침 安東

府使로 부임한 鄭述의 협조로 1608년에 완성된다. 柳成龍의 門人인 蒼石 李堧(1560~1635)도 尙州에서 〈商山志〉(1617年경)를, 善山에서 崔昞(1563~1640)과 함께 〈一善志〉(1630年경)를 찬하였다.

成汝信(1546~1632)은 晉州의 儒士로서 晉州의 邑誌인 〈晉陽志〉(1631年경)를 편찬하였으며 南冥의 門人이다. 경상도의 읍지 편찬자중에서 南冥 曹植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으로는 成汝信 외에 吳滌을 들 수 있다. 〈東史纂要〉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鄭述와 함께 〈咸州志〉 편찬에 관여하였다.

또한 咸陽邑誌인 〈天嶺誌〉를撰한 鄭秀民은 一憲 鄭汝昌의 增孫으로서 金宗直을 領袖로 하는 士林계열과 그 맥이 닿는다.

이상에서 16·7세기에는 경상도의 많은 지역에서 私撰邑誌가 간행되었으며 이는 주로 退溪와 南冥의 兩大 門人을 中心으로 하여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退溪와 南冥의 제자대에서 시작된 읍지 편찬의 추세는 다시 그들의 門下生으로 연결되는 맥락을 보이는데, 이들의 계보를 圖示해 보면 〈表 2〉와 같다.

이밖에 경상도에는 1611年 成晉善에 의해 만들어진 〈東萊誌〉가 있었으나 인멸되어 전하지 않고 1740年 府使 朴師昌이 편찬한 〈東萊府誌〉만 전하고 있다. 또 慶州에서는 閔周冕에 의해

14) 이외에 書名만 전하는 것으로 鄭述의 〈昌山志〉(昌寧), 許穆의 〈咸安志提要〉, 〈菴山志〉(玄風) 등이 있다.

15) 〈咸州志〉, 鄭述序, 奎章閣所藏.

余於郡求單父之老友 得武成之直經 李汝宣稱寬厚長者 朴仲思齊仁隱德有操 李汝涵齋才行高具 皆余所畏 而每見而每喜者也 吳太源滌 亦以邑中先進 方提督郡學 公私相聚 屢與之從容相與 見余所集山川民物之錄 以爲盡撰而成爲郡志乎 則余志也 竟見既得符緝錄 斯其濡翰旬日 功乃告訖 非諸君之誠而勤敏而勤 何其事之速成 而其緒之有條乎.

〈咸州志〉, 吳滌跋

又念本郡溪山之秀 地靈之美 甲于海邦 而文獻無徵 乃招延儒士 議撰郡志 設局於官裏 其凡例悉倣輿地志 而總目有加焉.

16) 〈寒岡別集〉, 寒岡先生行狀, 奎章閣所藏.

又於所泄之邑皆有誌 以記其邑之山川坊谷人物事蹟 爲一冊者 而皆不保.

17) 〈嶺南邑誌〉, 第19冊, 「京山誌序」, 奎章閣所藏.

吾文穆公寒岡鄭先生 凡所歷州府郡縣 如臨瀛福州咸州昌山同福 莫不撰誌.

〈東國輿地志〉「纂輯諸書」, 奎章閣所藏.

18) 〈永嘉誌〉, 權紀序, 奎章閣所藏.

適寒岡鄭先生 分符府土 下車之移 首招紀 仍求見草稿 卽聚光山金得研 永嘉權晤 眞城李懋 曲江裴得仁 鐵城李適 全州柳友潛 眞城李義遵 花山權克明 聞韶金近 蛇陽孫浣等 十人于府廨之偏寂處 或指揮焉 或書寫焉 一句而脫其稿 斯亦不幸之幸也.

19) 本節에서 人脈·學脈을 고찰하는 데에는 〈朝鮮儒教淵源〉(張志淵저), 〈東儒師友錄〉(朴世采저), 〈名世譜〉를 주로 참고하였고 개인의 文集과 邑誌의 「人物」조로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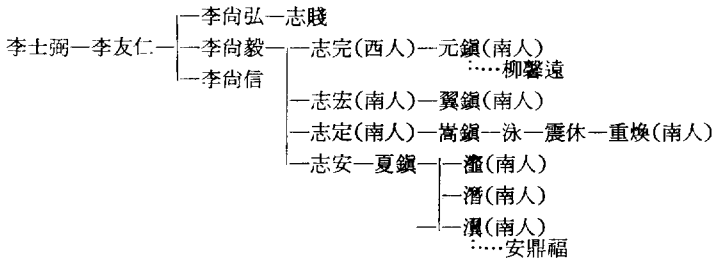
이후 星湖 李瀾, 淸譚 李重煥등이 배출되어 實學派의 地理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서들을 남김으로서 地理學의 발달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²⁵⁾. <平壤志>는 이외에 祥原邑誌인 <遼原志>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서지방의 읍지 편찬에 지표가 되고 있다. 梧陰의 아들인 尹暉(1571~1644)도 경기도 驪州에서 <黃驪志>를 찬했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²⁶⁾. 한편 開城에서는 金堉(1580~1658)이 1648년에 <松都誌>를 편찬하였는데²⁷⁾ 이것은 이후 <中京誌> 또는 <松都誌>로 命名되어 1700年, 1705年, 1757年, 1782年, 1785年, 1802年, 1824年, 1830年, 1855年 등 여러 차례 重刊되면서 1册에서 10册으로 내용이 증보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黃海道·平安道·京畿道 지방에서도 16·7세기에 걸쳐 私撰邑誌들이 광범하게 편찬되었으며, 이들 中北部 지방의 읍지들은 畿湖지방 中心의 西인들이 주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이들의 학문적인 연원은 金宗

直, 金宏弼로 이어지며, 이를 읍지 편찬양식과 체계면에서 고찰해 볼 때 경상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읍지와 일정한 연관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中北部지방의 邑誌편찬과 계보를 圖示해 보면 <表 4>가 되며, 다시 이를 南部地方인 慶尙道·全羅道및 江原道 지역의 읍지 편찬자 계보와 종합하면 <表 5>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외에 강원도 杆城의 守愼으로 부임한 澤堂 李植(1584~1647)에 의하여 <水城誌>가 편찬되는데 그는 中宗代에 <東國輿地勝覽>의 新增을 주관한 李荇의 玄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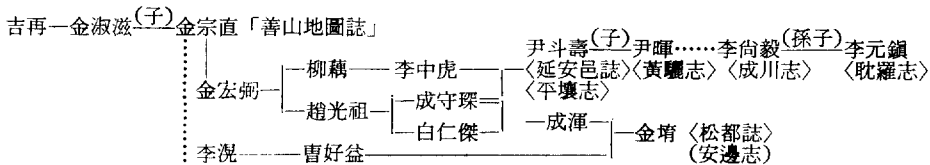
17세기末인 1699年(肅宗 25)에는 <東國輿地勝覽>을 續成하려는 의논이 조정에서 제기되면서 邑誌 편찬 명령이 전국에 下達된다. 이때 만들어진 邑誌로 <龍城誌>(南原), <興陽誌>, <三嘉邑誌>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興陽誌>, <三嘉邑誌>등은 각각 1758年, 1908年 改修된 본이 전하므로 원래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 편찬 당시

〈表 3〉 李尙毅의 家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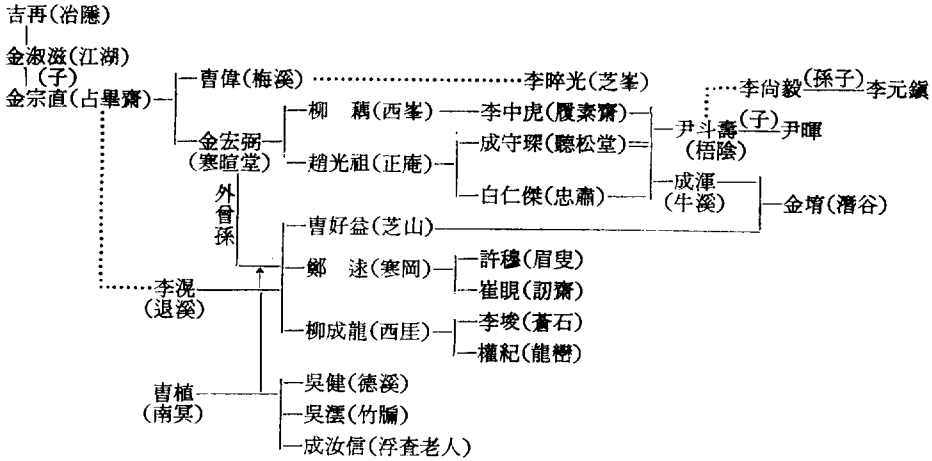
註) 1) 資料: 「名世譜」, 「萬姓大同譜」.
 2) 점선은 門人으로서 學脈을 표시한 것임.

〈表 4〉 中北部(黃海道·平安道·京畿道) 지방의 邑誌 編纂者 系譜



- 25) 李元鎮은 礪溪 柳馨遠의 外叔으로서 礪溪의 학문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實學派의 地理學과 地理書에 대해서는 別稿로 다루고자 한다.
- 26) <東國輿地志>, 「纂輯諸書」 참조.
- 27) <松都誌>는 尹斗壽의 아우인 尹根壽가 壬亂前에 편찬하였으나 兵火에 焚滅되어 전하지 않았던 것을 金堉이 새로 편찬하였다고 한다.
- 28) 이 계통의 맥락은 숙종대 이후로 이어져서 읍지와 지리지, 지도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明谷 崔錫鼎은 그 대표적인 人物로서 그는 17세기 후반에 중앙 관계에서 <東國輿地勝覽>의 續成을 강력히 주장하고 1691년에 연안에서 <延安邑誌>를 중수하기도 하였다.

〈表 5〉 16·17世紀의 邑誌 編纂者 系譜



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南原의 <龍城誌>는 朝令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였으나 南原 士族들의 주관하에 편찬되어 그 내용은 私撰 邑誌의 성격이 강하다.

이상 16·17세기에 편찬된 邑誌들의 목록을 도 표화하면 <表 6>으로 정리되며, <그림 1>은 16·17세기에 읍지가 편찬된 지역을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

원래 私撰 邑誌의 특징은 撰者의 個性과 目的이 크게 반영됨으로써 수록 내용의 다양성과 풍부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私撰 邑誌라 하여 읍지들간에 상호 연관성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私撰 邑誌들의 편찬 내에서도 상호 영향이 오가면서 사찬읍지 나름대로의 일정한 형식이 그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表 6〉 16·17世紀 邑誌의 分布

道	書 名	地 域	編纂年代	編 纂 者	備 考
慶 尙 道	威 州 志	威 安	1587	鄭 逵	1600年 吳澐이 再刊 柳成龍·鄭逵 관여
	永 嘉 誌	安 東	1608	權 紀	
	東 萊 誌	東 萊	1611	成晉善	1791年 金宏이 重刊 1899年 權相鶴이 重刊 不傳
	商 山 志	尙 州	1617	李 竣	1680年 李瑞雨가 葺山後誌 찬했으나 不傳 1740年 朴師昌의 東萊府誌 전함
	一 善 誌	善 山	1630경	李 竣·崔 睨	1477年 金宗直의 「善山地圖誌」 첨부되어 있음
	晉 陽 志	晉 州	1631경	成汝信·河 愷	
天 嶺 誌	咸 陽	1656	鄭秀民		
全 羅 道	東京雜記	慶 州	1669	閔周冕	1888年 鄭煥周 重刊 1711年 南至熏 重刊 1845年 成原默 重刊
	昇 平 志	順 天	1618	李暉光	※ 이외에 鄭逵의 <昌山志>(昌寧), 許穆의 <威安志提要>, <菴山志>(玄風) 등이 이름만 전함. 曹偉의 영향 1729年 洪重徵 重刊
全 羅 道	耽 羅 志	濟州·旌義·大靜	1653	李元鎮	

道	龍城誌 興陽誌	南興 原陽	1699 1700	李 謙·崔興天 宋來夏·柳東興	1752年 房斗天 重刊 1758年 李義培 重刊 ※ 이 외에 鄭述의 <同福志>도 不傳함.
忠清道	公山誌 鴻山縣誌	公州 鴻山			不傳 ¹⁾ 1861年 林廷會 重刊 不傳 ²⁾ ※ 이 외에 李晳光의 <洪陽志>(洪州), 鄭述의 <忠州志> 不傳
江原道	水城志 陟州志 春州志	杆城 陟川	1632 1662	李 植 許 穆 嚴 惺	1748年 金光遇 重刊 1745年 重刊 不傳 ※ 이 외에 鄭述의 <臨瀛志>(江陵), 鄭述의 <通川志>, 許穆의 <宜春志提要>(春川)는 이름만 전함
京畿道	松都誌	開城	1648	金 堉	1700年, 1705年, 1757年, 1782年, 1785年, 1802年, 1824年, 1830年, 1855年 重刊(中京誌) ※ 이 외에 尹暉의 <黃驪志>(驪州) 不傳
黃海道	延安邑誌	延安	1581	尹斗壽	1691年 崔錫鼎 重刊 1873年 鄭箕錫 重刊
平安道	平壤誌 成川誌	平壤 成川	1590 1603	尹斗壽 李尙毅	1730年 宋寅明 <平壤續誌> 1837年, 1855年 重刊 1656年 李東老 <成川續誌> 1842年 徐載淳 重刊
咸鏡道	北關誌	※	1617	李 植	1633年 李端夏 완성 1693年 申汝哲·李三頤 증보 1782年 申大謙 간행 ※ 鏡城, 吉州, 明川, 富寧, 會寧, 茂山, 鍾城, 穩城, 慶源. ※ 이 외에 金堉의 <安邊志>는 不傳

註) 1) <公山誌>(1861年), 林廷會跋.

舊有一卷邑誌 自經壬亂 只有草本 不得刊行 爲一鄉之欠事.

2) <湖西邑誌>(1871年), 第13册, 鴻山縣誌凡例.

縣之有兩本 而出各人之手存 於甲則漏於乙 胡亂其甚 故互相參考 合成一册.

4. 16~17世紀 邑誌의 體制

16·7世紀에 편찬된 私撰邑誌들이 地域의 差異를 보이며, 學脈上으로 연결관계를 가지면서 相互 영향 하에서 편찬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제 이들 읍지들의 體制를 검토해 봄으로써 편찬 맥락과 內容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상도 지방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읍지

인 <咸州志>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咸州志>의 항목을 살펴보면 <勝覽>에 없는 새로운 조항이 많이 첨가되는데(表 7 참조), 특히 주목되는 것은 「各里」, 「戶口」, 「田結」, 「堤堰」, 「灌溉」, 「軍器」등의 조목이다. 「各里」조에는 各里마다²⁹⁾ 사방 疆界를 자세히 기록하고, 東西·南北의 거리 및 里의 크기, 屬坊의 數와 이름, 土地의 비척, 水田·旱田의 정도, 居民의 신분, 風俗등을 기재하고 있다. 「戶口」, 「田結」도 各里마다 기

29) 여기에서 말하는 里는 후에 面 규모의 행정 단위이고, 里 밑에 소속된 屬坊이 후의 里와 같은 성격이라고 수 있다.

〈表 7〉 〈新增東國輿地勝覽〉과 〈威州志〉의 編目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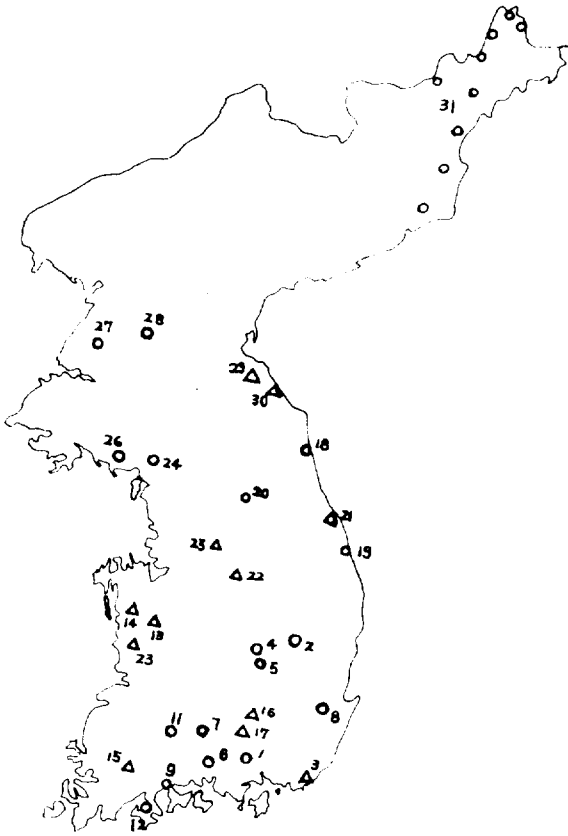
編目	書名	新增東國輿地勝覽	威州志
官	員	○	×
各里(四方境界·屬坊·土地肥瘠·居民身分·風俗)		×	○
戶	口	×	○
田	結	×	○
軍	器	×	○
堤	堰	×	○
灌	漑	×	○
任	官	×	○
流	配	×	○
科 (文科·武科·司馬)	舉	×	○
旌	表	×	○
冊	板	×	○
叢	談	×	○

註) 1) 서로 상이한 편목만을 비교한 것임.

2) ○: 있음. ×: 없음.

특하여 지방의 말단 행정 단위에까지 소상한 파악을 하고 있다. 〈威州志〉에 기록된 위와 같은 항목들은 守令·田政·軍政·賦役을 부과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이를 통하여 均賦役, 輕徭薄賦의 정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니 당시 사회 실정에서 이른바 安民의 요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威州志〉에는 이밖에도 〈勝覽〉에 없었던 「壇廟」, 「任官」, 「流配」, 「善行」, 「文科」, 「武科」, 「司馬」, 「塚墓」, 「旌表」, 「冊板」, 「叢談」등의 항목이 첨가되거나 독립항목으로 설정된다. 이 항목들은 지방의 風俗을 교화하고 名分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서 善俗의 요체가 되는 내용들이다.

16세기末에 성립된 이와같은 체제는 이후 경상도 지방에서 편찬되는 읍지들의 바탕이 된다. 〈威州志〉를 참고하여 편찬했다고 하는 〈永嘉誌〉의 경우 항목이 거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순서도 거의 동일하다. 〈表 8〉에서 보듯이 〈威州志〉에 비해서 다만 항목이 보다 細分化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밖에 〈永嘉誌〉에 새로이 池塘·林藪·孝子·烈婦·匠店·場市조등의 편목이 첨가되고, 文科·武科·司馬·旌表·冊板·題詠등이 누락되는 변동이 있으나 기본적인 골격에는 변동이 없다.



10

그림 1 16·17세기의 邑誌 編纂 地域

○.....現傳 邑誌 편찬 지역

△.....不傳 邑誌 편찬 지역

1. 威安: 威州志
2. 安東: 永嘉誌
3. 東萊: 東萊誌
4. 尙州: 尙山志
5. 善山: 一善誌
6. 晋州: 晋陽志
7. 威陽: 天嶺誌
8. 慶州: 東京雜記
9. 順天: 昇平志
10. 濟州: 耽羅志
11. 南原: 龍城誌
12. 興陽: 興陽志
13. 公州: 公山誌
14. 洪州: 洪陽志
15. 同福: 同福志
16. 玄風: 苞山志
17. 昌寧: 昌山志
18. 杆城: 水城志
19. 三陟: 陟州志
20. 春川: 春州志
21. 江陵: 臨瀛志
22. 忠州: 忠州志
23. 鴻山: 鴻山縣誌
24. 開城: 松都誌
25. 驪州: 黃驪志
26. 延安: 延安邑誌
27. 平壤: 平壤誌
28. 成川: 成川誌
29. 安邊: 安邊志
30. 通川: 通川志
31. 鏡城·吉州·明川·富寧·會寧·茂山·鍾城·穩城·慶源: 北關誌

〈表 8〉 〈威州志〉와 〈永嘉誌〉의 編目 비교

威 州 志	永 嘉 誌
建置沿革	沿革 各縣沿革
四隣疆界	疆域 鎮管 界首官所屬 官員
戶口·田結	戶口 田結 軍額 奴婢
學校·書院	鄉校 書堂 書院 鄉社堂
土產	土品 土產
橋梁	津渡 橋梁
佛宇	佛宇 古塔

註) 同一 항목 중 細分되는 항목만 비교하였음.

〈晉陽志〉 역시 〈威州志〉의 자매편이라고 할만 큼 유사한 체제와 내용을 지니면서 편찬되었다. 특히 各里條의 기재 방식은 兩邑誌가 상호 영향 관계 하에서 편찬되었음을 확증시켜 준다. 두 읍지 사이에 서로 상이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晉陽志〉에 첨가된 항목: 屬縣·鎮管·官員·
林藪·關防·兵使
〈晉陽志〉에 누락된 항목: 寓民·閨行·旌表·
冊板·題詠

이렇게 볼 때 〈威州志〉—〈永嘉誌〉—〈晉陽志〉 등은 같은 맥락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壬亂 이전의 읍지 편찬의 목적과 필요성이 壬亂 후, 적어도 17세기 초반까지는 일관성있게 지속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임란 직전의 貢法 체제의 문란, 收取 질서의 붕

괴, 향촌 사회의 파괴와 農民의 유리 현상으로 부터 제기되었던 鄉村秩序의 안정문제는 임란 이후에 이르러서는 파괴된 鄉村秩序의 복구라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본 입장과 필요성은 同一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이 邑誌編纂의 체제 및 내용면에서 同質性을 지니게 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威州志〉를 필두로 하는 이와같은 읍지의 체제는 蒼石 李焞이 편찬한 〈商山志〉〈一善志〉등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兩書는 대체로 輿地, 貢賦, 學校, 秩祀, 官制, 公署, 人物, 古跡, 文翰(題詠)등 10개의 編目으로 크게 分類한 후 各編目마다 다시 세분된 조목을 두어 총 50~60조목에 이르는 상세함을 보인다(〈表 9〉). 「學校」조를 예를 들어 보면 鄉校·書院·學令·學制·學田·田僕등으로 細分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西北部地方에서 편찬되는 읍지들도 양식면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편찬된 〈延安邑誌〉는 〈威州志〉와 비교해 볼 때 軍總·倉庫·進上·官屬등이 첨가되는 반면, 灌溉·冊板·題詠등이 누락된다. 〈平壤誌〉에서는, 平壤의 장구한 역사성 및 〈箕子志〉를 저본으로 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文談·神異·雜志·詩·文등 文蹟이 강화되었다. 〈成川誌〉는 〈平壤誌〉와 대동소이하지만 倉儲·兵制·驛道·土田·貢賦·古事·文談·神異·詩·文이 제외되었다. 이러한 편목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경상도 지역의 읍지들과 대체로 同一한 것으로서 16세기 말엽의 읍지편찬의 배경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西北部 지방의 읍지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各項을 설정한 이유를 項目의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序로서 밝히고 있는 점이다³⁰⁾. 이것은 경상도를 중심한 중남부 지방의 읍지 양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면이다. 예를 들면 「部坊의 설치는 “民居를 높이고 民數를 안정시키는 소이이니, 이것으로서 賦를 定하고 이로 말미암

30) 項目名 다음에 항목의 설정 이유를 序의 형태로서 밝히고 있는 양식은 〈平壤誌〉에서 처음 보이고 있다. 이것은 中國 邑誌들의 영향과 단련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의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경상도 지방 읍지 중에서는 〈商山志〉가 일부 같은 체제를 취하고 있다.

〈表 9〉 〈商山志〉와 〈一善誌〉의 編目

商 山 志		一 善 誌	
編	目	編	目
一. 輿地	1. 沿革 2. 屬縣 3. 疆域 4. 山川 5. 城池 6. 驛院 7. 橋梁 8. 姓氏 9. 風俗 10. 燧燧 11. 津渡	一. 地理	1. 沿革(郡名, 屬縣, 官職, 疆域) 2. 形勝 3. 山川 4. 城壇 5. 藪澤 6. 池渠 7. 燧燧 8. 嶺峴 9. 津橋 10. 坊里 11. 場市 12. 驛院 13. 田野 14. 姓氏 15. 墳墓
		二. 風俗	
二. 貢賦	12. 田賦 13. 土貢 14. 土產 15. 戶口 16. 軍兵 17. 徭役	三. 貢賦	17. 田結 18. 戶口 19. 土產 20. 土貢(進上物件) 21. 倉穀 22. 軍摠 23. 雜役
三. 學校	18. 鄉校 19. 書院 20. 書堂 21. 學制 22. 學田	五. 學校	26. 鄉校 27. 海平鄉校 28. 學制 29. 學令 30. 學田 31. 田僕 32. 書院
四. 秩祀	23. 壇廟 24. 廟制	六. 秩祀	33. 壇壝 34. 廟制 35. 冊板
五. 官制	25. 牧使 26. 判官 27. 文提督 28. 武提督	四. 官帥	24. 邑倅 25. 教授
六. 公署	29. 客館 30. 州衙 31. 附留鄉所 32. 醫局	七. 公署	36. 客館 37. 公衙 38. 司倉 39. 官廳 40. 府司 41. 軍器庫 42. 大同廳 43. 武學堂 44. 鄉社堂 45. 鳳下樓 46. 司馬所
八. 人物	34. 文官 35. 武舉 36. 蔭叙 37. 思錫 38. 孝烈	九. 人物	50. 后妃 51. 先賢 52. 勲業 53. 文武 54. 蔭仕 55. 應薦 56. 孝子 57. 烈女
九. 古跡	39. 古郡 40. 古縣 41. 山城 42. 部曲 43. 亭觀 44. 寺刹	八. 古跡	47. 亭觀 48. 佛宇
十. 文翰	45. 題詠 46. 記 47. 序 48. 碑文 49. 上梁文 50. 雜著	十. 題詠	※ 〈商山志〉의 45~50조목을 모두 포함.

아 役을 給하므로 읍지에 쓰지 않을 수 없다”³¹⁾고 하여 部坊조를 읍지에 기록한 목적이 民生에 가장 중요한 부담이 되는 “定賦”, “給役”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沿革」은

“郡邑의 廢興은 곧 당시의 治亂이 관계된 것이므로 分合·升降·地理의 廣狹·官秩의 尊卑를 志에 기록함으로써 古今의 盛衰之蹟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³²⁾.

라고 항목 설정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남부지방의 私撰邑誌들과 北西部 지방의 私撰邑誌들의 전체적인 체제와 항목 설정등을 종합해 보면 조선전기 에 나타난 두가지 성격의 전국지리지, 즉 世宗代에 이룩된 지리지와 輿地

勝覽 계통의 兩大 지리지의 성격을 종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전국지리지로서 지녀야 했던 一面에 편중되는 점을 극복해서 세종대 지리지의 장점인 政治·經濟·軍事·社會的인 면은 물론, 〈勝覽〉의 장점인 人物·禮俗·詩文 등을 구비한 체제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읍지가 자료로서 지니는 가치와 내용의 풍부함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7세기 중엽이 되면 또다른 읍지 편찬의 경향이 대두된다. 咸陽의 〈天嶺誌〉는 戶口·軍丁·土產·進貢·徭役·道路·堤堰등 경제적인 내용이 제외되고 人物·學校 등에 관한 항목에

31) 〈成川志〉, 第2册, 「部坊」.

32) 상계서, 第2册, 「沿革」.

〈表 10〉 〈天嶺誌〉와 〈松都誌〉의 編目

天嶺誌	地圖, 建置沿革, 邑號, 姓氏, 風俗, 形勝, 山川, 人物, 烈婦, 土產, 祠廟, 鄉校, 書院, 旌門, 司馬齋, 鄉射堂, 書堂, 城郭, 樓亭, 墳墓, 驛院, 橋梁, 寺刹, 古跡, 名宦, 拾遺, 題詠, 詩什, 雜著
松都誌	(沿革), (疆域), 宮殿(樓亭), 城郭, 部坊, 學校, 公廨, 驛院, 山川, 橋梁, 健甃, 古跡, 寺觀, 諸陵, 人物, 忠臣, 孝子, 烈女, 才行, 文科, 武科, 生員, 進士, 士俗, 府先生案, 經歷, 都事, (雜記)

註) ()의 項目은 題目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內容이 기록된 것임.

중점이 두어진다. 이러한 체제는 〈表 10〉에서 볼 수 있듯이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金堉의 〈松都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³³⁾.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이와같이 人物·風俗등이 강조되는 경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性理學의 名分論의 강화 현상이라는 思想史的 변화가 읍지 편찬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性理學이 향촌 사회 내에서 규범으로 정착화되고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읍지는 一邑의 文籍으로서 그러한 사회규범을 반영하며 제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변경지방의 방어·군사 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편찬되는 〈北關誌〉, 〈東萊誌〉, 〈耽羅志〉 등은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체제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耽羅志〉에는 防護所·水戰所·鄉約·將官·工匠·奴婢·果園·牧養·醫藥등이 추가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는 군사·방어면은 물론 이밖에도 지방의 특색이 드러나고 있어서 읍지들이 일률적인 편제 하에서 작성되지 않고 각 지방의 실정을 나타내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16~17世紀 邑誌의 性格

邑宰를 中心으로 하는 各邑에서의 個別的인 私撰邑誌의 편찬은 地方統治의 원활화와 합리화에 필요한 精確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었다. 수령이 그 지방에 대한 精確한 자료와 지식이 없이 제한된 임기 내에 훌륭한 統治를 수행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수령의 빈번한 교체와 지방 통치의 문제점으로 누누히 지적되는 분위기 하에서는 그 지방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修己治人의 道學政治 이념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더우기 鮮初와 같이 鄉吏들이 지방 토호세력으로서 아직 강하게 남아 있어서 守令權과 대립하는 입장에 있을 경우 強猾한 鄉吏들에 의해 守令은 治民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一善誌〉 책머리에 첨부되어 있는 金宗直의 「善山地圖誌」(1477)는 15세기말의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善山地圖의 제작 목적은 強宗猾吏로부터 地方民을 보호하고 부역을 균등히 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³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을 그는 먼저 簿籍으로써 하고 그후에 地圖에 의거하여 상고하려 하였다. 이에 地圖에 山·川·井·落·倉·驛·院·驛을 그려넣고 戶口·墾田·道里의 數字를 써서³⁵⁾ 強宗猾吏들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私撰邑誌가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고 편찬되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6세기에 이르러서이며,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 즉 壬亂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시기에 읍지가 많이 편찬되는 배경은 읍지撰者들의 序文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들 序文을 중심으로 16~17세기에 편찬된 읍지들의

33) 1700년부터 1855년에 이르기까지 7차례에 걸친 增補·改修 과정을 통해 제외되었던 上記 항목들의 내용이 보충된다.

34) 〈一善誌〉, 「善山地圖誌」, 金宗直.

邑圖之於守令爲其切焉 蓋其山川廣袤 戶口多寡 墾田贏縮 道里遠近 於是乎有考焉 以賦於民 而均差其租庸調 以奉公 寧可少耶… 爲守宰者 苟失於檢括句稽 則鮮不爲強宗猾吏之所欺弊者 齊民之受害 可勝道哉.

35) 상계서, 「善山地圖誌」.

鄉父老之望者 惟在於均賦役 欲均之 惟在於明簿籍 簿籍已粗明矣 又命畫手 悉其山川井落倉廩院驛 繪之于一幅 戶口墾田道里之數 亦疏遠村之下.

성격과 그 배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延安邑誌〉序文에서 尹斗壽는 邑誌를 편찬하게 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당시의 社會相에서 찾고 있다.

“村居가 조밀해지고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니 寸土에 대해서 쟁송이 있게 되고 商人들은 道路를 따라 나오게 되어 欺謾의 風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豪民들이 訟事하기를 좋아하며, 교활한 향리들이 法을 농락하고, 田制가 문란하며, 賦役은 공평하지 않아서 眞僞를 판별하기 어렵고 變詐가 온갖 형상을 이루고 있어 政命이 아래로 백성들에게 내려가기 어렵다.”³⁶⁾ 즉 16세기 말엽의 延安 지방은 寸土爭訟, 欺謾成風, 豪民健訟, 猾吏弄法, 田制紊亂, 賦役不均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혼란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尹斗壽는 읍지의 편찬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邑人 進士 陸孝範이 읍지를 만듦에 많은 자료를 모으고 세세한 사실까지 수집하여 상세하고 완전히 하고자 하였다. 이에 집밖에 나가서 알아도 一邑의 風土를 알 수 있고,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지나간 일들의得失을 얻을 수 있어서 완전히 中國에서 편찬된 것 같았다. ……物이 生하는 바에 인하여 번식하게 하고 百姓이 이롭게 여기는 바에 인하여 이끌어 주면 緩急이 마땅함을 얻고 先後가 순서가 있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그 情實에 어긋남이 없게 되고, 백성들이 曉諭하는 바에 쉽게 따르게 되며 날마다 자신도 모르게 善에 나아가게 되어 수고는 옛보다 반으로 줄어든나 효험은 반드시 배가 될 것이니 읍지편찬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³⁷⁾

라고 하여 읍지 편찬의 의도를 一邑의 風土, 往事의得失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백성들이 이롭

게 여기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함으로써 命命이 情實에 부합되고 曉諭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이어서

“이제 여기에 수록된 것을 보면 地理·建墮·官師·人物·詞守·田賦등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어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정치를 하면 마치 黑白을 분별하는 듯해서 帷中에 앉아 있으면서도 四境에 이를 수 있어 장차 吏屬들이 검속되고 백성들이 實情을 모두 토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政事가 용이해지고 바람이 불면 풀이 눅듯이 教化가 행해져서 집집마다 仁·讓의 風이 일어나고 사람마다 君子의 陶成함을 행하리니 國家 昇平之樂의 端緒가 여기에(邑誌에 : 필자주) 있는 것이다.”³⁸⁾

라고 하여 國家 昇平之樂의 端緒를 읍지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편찬된 〈威州志〉 역시 임란 직전의 사회 분위기를 읍지 편찬의 배경으로서 지적하고 있다. 鄭述은 백성의 궁핍함(民貧)이 토양의 척박함과 하늘의 재해(天災)라는 自然的 조건에서 연유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賦役의 煩重함과 刑政의 가혹함이라는 정치적 조건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아무리 沃土에 거하는 백성이라도 과중한 수탈과 가혹한 형벌 하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³⁹⁾.

또한 풍속의 해이해짐(俗離)이 비록 風土가 오래된 데서 말미암는다 하더라도 教化가 근본이 없고 禮讓이 흥기하지 않으며, 오직 法令과 繩律만이 엄하게 되면 비록 淳質한 선비로 담당하게 해도 능히 스스로 밝게 할 수 없다⁴⁰⁾고 하여 풍속의 해이해짐은 원인을 “教化無本”과 “禮讓不興”에서 구하였다. 더구나 王亂 직전에는 “公文이 날로 많아지고 邊境이 煩劇하며 微毒의 煩重과 詞責의 엄준”으로 날로 사회가 피폐해

36) 〈延安邑誌〉, 「舊誌序」, 尹斗壽, 奎章閣所藏.

37) 〈延安邑誌〉, 「舊誌序」, 奎章閣所藏.

38) 상계서, 「舊誌序」.

39) 〈威州志〉, 鄭述序, 奎章閣所藏

民貧雖由於地瘠天災 而賦役之煩 刑政之苛 叫囂墮突之不暇 則雖使沃土之民處焉 其有能自保者乎.

40) 상계서, 鄭述序.

俗離雖由於風土之舊 而教化無本 禮讓不興 惟法令繩律之是嚴 則雖使淳質之士當之 其有能自淑者乎.

가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生民의 방책은 수령들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⁴¹⁾. <威州志>는 이와같은 사회 실정 속에서 守令된 자가 “安民善俗”의 요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한 것이다⁴²⁾. 즉 「賦役之煩」과 「刑政之苛」에 의한 民貧을 막아 安民을 꾀하고, 「教化無本」과 「禮讓不興」에 의한 俗離를 막아 善俗을 이룩해 보고자 하는데 그 편찬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威州志>의 체제는 戶口·田結·軍政등 경제적인 면이 강한 世宗代의 지리지 성격과 文物·禮俗·詩文등의 항목이 보강된 <勝覽>의 성격을 詳備하여 편찬됨으로써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16세기말 임란 직전의 수령의 苛政⁴³⁾, 豪民과 猾吏의 발호, 百姓의 피폐와 流離, 賦役의 不均衡등 정치·경제·사회적 문란은 私撰邑誌를 편찬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性理學의인 理念이 보다 철저하였던 士林들이 修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治人”의 이상을 지방의 牧民官으로서 실현하려 하였을 때 통치자료의 근간이 되는 읍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던 것이다. 壬亂 직전에 私撰邑誌가 집중적으로 편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었다.

한편 壬辰倭亂은 이전부터 동요되어 가고 있던 사회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전국이 황폐화된다. 이에 따라 전쟁으로 파괴된 향촌 질서의 복구 자료로서 壬亂 이전에 편찬되었던 邑誌들이 再刊되기도 하고 혹은 새로이 간행되기도 한다.

우선 <威州志>의 경우를 보면 1587년에 편찬된 <威州志>는 壬亂 직후인 1600년에 威安 출신 士族인 吳澐이 그대로 再刊한다. 吳澐은 跋文에

서 壬亂으로 인한 人命과 土地의 손실, 그에 따른 村落의 황폐화를 자신의 고향을 예로 들어

“당시(처음으로 <威州志>를 편찬한 1587年 : 원자 주) 기록된 戶口數가 850여호 이었는데 이제 한사람도 토지로 돌아온 자가 없다. 한 벽촌이 이와 같으니 사망을 가히 알 수 있다.”⁴⁴⁾라고 하고 있다. 이에 <威州志>를 再刊하는 목적을

“하물며 世家士族으로서 文物이 풍부하고 윤택한 자들은 한번 兵燹을 겪음에 그 禍가 松楸·靈銘幽隔에까지 미쳐서 保完된 것이 거의 없다. 후예들이 先世의 일을 알고자 해도 막연히 찾을 바가 없는데 홀로 이 <威州志>가 남아 이를 의존할 수 있다. 某山某壠은 우리 先墓가 있는 곳이고 某水某丘는 우리 父祖가 살던 곳이라 하여 지나간 자취와 先世의 행적이 환히 前日 일처럼 드러난다.”⁴⁵⁾

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임란을 겪고난 후 국토가 분탕되어 田土·森林·墓地등이 탕실되고 居民의 生還도 없는 상태 하에서 촌락 內에서는 緣故權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서 임란 직전에 편찬된 <威州志>를 중요시 한 것이다. 특히 土地나 삼림, 묘지등의 소유권을 되찾는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在地의 기반을 가지고 있던 士族, 부유층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임란 이전에 지니고 있던 세력 기반의 확보와 향촌 주도권의 새로운 장악을 위하여 촌락의 안정을 꾀하게 되며 이에 읍지를 재간하는 것이다.

임란으로 파괴된 향촌 질서를 在地 士族屬이 중심이 되어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편찬한 邑誌로 <晉陽志>를 들 수 있다. <晉陽志>는 전술한 바처럼 <威州志>와 거의 同一한 내용으

41) 상계서.

況文移日委 邊警日劇 徵毒是煩 詞責是竣 爲守令者 方且困於期會簿書之間 而不關是憂 曷得有留意於生民之要 迪士之方者乎.

42) 상계서.

惟今日之所望 則爲長民於茲焉者 有以深警夫前之所言者 而審其幾之所在 益加勉乎其本 而毋忽於安民善俗之要 則其交之所及 殊非余之所敢言 而亦有非余之所敢量者 余雖欲不言.

43) 이러한 실정은 이미 明宗代에도 지적되고 있었다. 수령이 牧民官으로서 책임자가 선택되지 않아 田野荒蕪, 民生困苦, 村落空虛의 현상이 많이 나리났던 것이다.

掌令權純曰 守令不擇其人 恤民者少 貧虐者多 以此村落空虛 田野荒蕪 民生困苦 未有甚於此時 若擇授廉簡之人 薄稅輕徭 則民受其惠 而流離者可以還集矣(明宗實錄, 卷 29, 18年 2月 壬戌).

44) <威州志>, 吳澐跋, 奎章閣所藏.

45) <威州志>, 吳澐跋.

로 구성되었다. 다만 「各里」條에 壬亂을 경과하면서 변동된 里의 廢合등에 관한 변경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그밖의 항목에서도 壬亂 전후의 변동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姓氏」조에는 “河家族譜序” “柳氏族譜序” “河氏世係辨” 등이 실려 있음이 눈에 띈다⁴⁶⁾. 一郡의 邑誌에 한두 姓氏의 族譜序와 世係辨을 실고 있는 것은 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역시 편찬을 주도하였던 人物과 관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晉陽志〉는 成晉善이 완성하였지만, 본래 책의 구성을 發議한 이는 河愷이다. 그러나 그는 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⁴⁷⁾. 따라서 책의 체제나 내용에 그의 영향력이 깊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河氏世係辨”은 바로 그가 작성한 것이며, 「人物」條에 河氏가 가장 많이 수록되는(姜·鄭姓의 人物들이 그 다음으로 많다) 것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勝覽〉이 中央 관계에 진출한 官人들의 위세 진작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⁴⁸⁾. 지방에서 편찬되는 읍지들, 특히 在地土族들의 주관 하에 편찬되는 읍지들 가운데는 地方勢力家들의 威勢를 顯揚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1760년에 만들어진 〈淳昌郡誌〉에서는

“벗(여기서는 읍지 편찬자인 韓致明을 이름— 필자 주)이 내게 이 跋文을 청한 까닭이 어찌 다른 데에 있겠는가. 근세 이래로 風俗이 옛 같지 않고 文字를 만드는 자들은 私情에 많이 이끌려서 濫雜의 폐단이 없지 않았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까닭인 것이다”⁴⁹⁾.

라고 하여 근세 이래로 風俗이 변하고 글을 쓰거나 책을 만드는 者들이 私情에 이끌리기 때문

에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韓致明이 만든 淳昌邑誌는 이러한 폐단에서 벗어났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당시에 個人 또는 몇몇 儒士들이 邑誌를 자신들의 家門을 천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邑誌 작성에 私私로운 이해가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⁵⁰⁾.

그러나 16세기 말엽에 나타나기 시작한 私撰 邑誌들은 1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편찬의 주요동기는 무너진 사회 질서의 복구와 안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1617년경 蒼石 李堧에 의하여 편찬된 〈商山志〉를 통해 이러한 면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田賦와 土貢은 모두 일정한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兵亂을 겪고난 후부터 版籍이 모두 불타 버려서 九賦九貢의 法을 상고할 만한 곳이 없어졌다. 經界를 바로하고 貢賦를 균등히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급선무인데, 고식적으로 대처하여 개혁을 하지 않으니 識者들의 恨이 된다.”⁵¹⁾

고 하여 당시의 가장 시급한 일로서 “正經界”와 “均賦役”을 지적하였다. 전쟁을 겪고난 후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土地나 山林등의 경계를 바로 잡는 것이었던 것이다. 또한 賦役을 均等히 하는 일도 生民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壬亂 이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壬亂을 전후로 하여 편찬된 私撰 邑誌들은 기본 성격에 있어서는 同質性을 보이면서도 편찬자의 성격 및 맥락, 지역에 따라 독자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편찬된 〈永嘉誌〉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永嘉誌〉 편찬의 동기는 壬亂으로 말미암아 붕괴된 촌락 질서의 복

46) “河家族譜序”에서는 三韓 때부터의 土姓으로 河·鄭·蘇·姜의 四姓을, 그리고 立州後의 土姓으로 柳·任·康의 三姓을 들고, 나머지 新姓들은 庶人이라고 하면서 족보 편찬의 경위를 밝히고 있다. “柳氏族譜序”에서는 各家所藏之譜에 있는 오류를 교정하고, “河氏世係辨”에는 임란후 족보를 새로 만들게 된 경위와 世係에 있는 혼동을 바로잡는 내용이 실려 있다.

47) 〈晉陽志〉, 「人物」條.

河愷…… 又與二三同志 相議共撰晉州志 未及脫藥而歿 土類咸嗟 聞者惜之.

48) 李泰鎮, 註 6) 참조.

49) 〈淳昌郡誌〉, 楊應秀跋, 奎章閣所藏.

50) 咸陽의 〈天嶺誌〉도 鄭秀民이 先祖인 鄭汝昌 先生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의도가 크다.

51) 〈商山志〉, 「貢賦」條.

구 및 安東이 士林들의 淵源이라는 『性理學의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⁵²⁾ 그위에 〈東覽〉의 소략함에 대한 불만등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촌락 질서의 복구나 安東의沿革에 대한 자부심은 「各里」조에 잘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는 四隣疆界·屬坊에 이어 各縣에 소속된 村과 위치, 지형, 古跡이나 奇異등 특징적인 사항, 土族과 平民들의 居住정도, 촌락 명칭의 유래, 土地의 비척, 卜居·名士들의 배출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土品」, 「土產」 및 「鄉校」條가 매우 상세하다. 「鄉校」條에는 配位, 祝文, 祭服, 次序, 祭享物種, 學令, 差祭完議등을 일일이 기록하였다. 무엇보다도 〈永嘉誌〉 편찬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勝覽〉의 소략함에 대한 불만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永嘉誌〉序에

“우리 府의 山川의 뛰어난, 人物의 훌륭한, 土產의 풍부한, 風俗의 아름다움 및 奇異한 자취가 勝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백중에서 하나·둘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는 옛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사라져 沈沒한 것이 몇천만이 되지 않 수 없다.”⁵³⁾

라는 기록은 그러한 사정을 잘 반영해 준다. 〈永嘉誌〉는 4冊에 걸쳐 安東 지방에 대한 自然·歷史·風俗·土產·文跡·人物·奇異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고 다양해 지는

데 이에 安東의 독자적인 歷史地理書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게 되었다⁵⁴⁾. 〈輿地勝覽〉의 소략함을 補完하는 입장에서 편찬된 읍지로는 이밖에도 〈昇平志〉가 있다⁵⁵⁾.

私撰邑誌 중 邊境地方의 邑誌들은 또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1612년경에 편찬된 〈東萊誌〉는 壬亂을 겪고난 후 특히 군사·방어면에 목적을 두고 편찬되었다. 壬辰亂 당시를 상기시키면서

“일이 없을 때에 미리 患難을 걱정하여 도모를 해 두어서 그 山川의 險夷와 道里의 遠近과 城郭의 高低와 卒伍의 多寡와 軍校·糧餉의 數와 戈甲·旗幟 종류를 한책에 갖추어 기록해서 府中에 장치해 두면 亂에 당했을 때 반드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⁵⁶⁾

라고 편찬 목적을 밝히고 난 후, 그 大要를 山川·道里·城郭·卒伍·軍校·糧餉·戈甲·旗幟를 위주로 하면서 기타 東萊에 관계되는 사실을 모두 기록하고 忠烈事跡을 상세히 실어 놓았던 것이다⁵⁷⁾. 이렇게 軍事的인 면을 강조한 읍지로는 前述하였듯이 〈北關誌〉와 〈耽羅志〉등이 있다.

17世紀 중엽의 〈天嶺誌〉는 성격면에서 前記한 읍지들과는 그 계통을 달리 한다. 撰者가 丙子·丁卯 兩亂 후 風氣가 寢薄·險夷해 가는 사회현실을 목도하면서 孝悌忠烈 사상을 고취하고자

52) 〈永嘉誌〉, 權紀序.

上舍權君終允承西厓柳先生命來言曰 我府固一道之雄藩…… 凡事蹟之可記者多矣 而古今操筆 未有一人留意於此者 豈非吾府之差歟 願兼加致意焉.

53) 〈永嘉誌〉序.

54) 이러한 성격의 읍지로는 이외에도 〈平壤志〉〈成川誌〉〈東京雜記〉등이 대표적이며 이후의 읍지들에서는 國家에 實錄이 있듯이 各邑에는 史乘으로서 읍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빈번히 나타난다.

55) 〈昇平志〉, 李陞光跋.

我東志記之作 唯輿地勝覽一書 而疎略亦甚…… 茲就勝覽所載 而益以所聞 至於題詠之在人耳目者 并拙稿略付庶幾補輿誌之闕.

〈龍城誌〉房斗天跋에도

蓋龍城地誌載勝覽古矣 而土地物產山川形勝 已略焉不詳.

56) 〈東萊府誌〉, 朴師昌序.

萬曆壬辰之巳事可見也 及其無事之時 預軫慮患之圖 其山川之險夷 道里之遠近 城郭之高低 卒伍之多寡 軍校糧餉之數 戈甲旗幟之屬 備載一書 藏置府中 則必有所一分資益於臨亂

이는 1740년에 重修하면서 쓴 序文이지만, 府使 成晉善이 〈東萊誌〉를 만든 것이 여기에 뜻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고 있다.

57) 상계서, 朴師昌序.

大要以山川道里城郭卒伍軍校糧餉戈甲旗幟爲主 其他關係是府者 雖(?)啓不遺以備考 至於忠烈事跡之詳載者 竊念宋使君鄭節人 當亂抗節 視死如歸 其忠義凜然 樹立卓爾 昭足爲明 萃乎泰山不足爲高 則安得不悉叙顯末 以臣義士之是哉.

하였다⁵⁸⁾. 性理學的인 윤리관에 의지하여 향촌 질서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찬자의 의도가 읍지 편찬에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天嶺誌>는 標榜名目은 <勝覽>의 大要를 逸脫하지 않으면서 人物·軌躅·孝悌·忠烈·隱遜·高趣 부분을 더욱 상세히 하여 用心工夫에 힘쓰게 하고자 하였다⁵⁹⁾. 이러한 성격의 읍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松都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松都誌>에서는 家國의 興喪, 敎化의 得失, 人才의 盛衰, 古今의 風俗등을 간략히 기록하고, 吟風咏月이나 駁雜無用한 글들은 수록하지 않았다⁶⁰⁾.

兩亂 이후 사회질서가 서서히 정비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地方 질서에 대한 정부의 파악은 좀더 깊숙하게 하부에까지 미치게 된다. 行政力의 하부 단위에까지로의 파악과 정비는 지방행정자료에 대한 필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邑단위로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던 邑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肅宗朝에는 몇차례에 걸쳐 지리지 편찬 의논이 대두된다. 처음에는 <輿地勝覽>의 增補刊行 작업에 논의의 한정시키나 결실을 보지 못한다⁶¹⁾. 그것도 주로 人物의 添闕 및 地名의 遺漏者(특히 人君의 사적과 관련된 지역), 훌륭한 詩文등의 添錄을 대상으로 하는 정도였다⁶²⁾. 그러다가 20여년이 지난 17세기 말에 이르러 전에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朴信圭와 兪得一이 監司時에 輿地勝覽을 哀集增續했던 사

실들을 기초로 해서 輿地勝覽 續成을 위해 各道에 邑誌搜集上送의 命을 내린다⁶³⁾. 그러나 각 지방에서 제작된 邑誌들이 上送되어 종합되거나 編輯되었는지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각 지방에서 만들었던 읍지들 중 몇몇 副本이 남아 있어 당시 제작된 읍지들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당시 편찬된 <三嘉邑誌>에서는

“今年(1699年：肅宗 25年一筆者 주) 여름 우리 聖上께서 經筵에서 東國輿地勝覽을 新增하라는 命을 名道 守令들에게 頒布하라 하셨다. 내가 마침 三嘉郡守로 부임하여 삼가 王命을 받들어 遵行하고자 하였다. 이에 邑中事實들을 수집하고 옛을 참고하며 지금을 證驗하여 分類해 순서를 갖춘 후 合하여 一編의 冊을 만들었다. 城郭·山川·塚廟·學校·樓觀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과 칭송하여 가히 기록할만한 사항들 및 孝子·忠臣·烈女·名公·碩卿의 뛰어난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일이 갖추어 수록하였으니 그것이 世道에 관계됨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다.”⁶⁴⁾

라 하여 城郭·山川·塚廟·學校·樓觀 및 기타 수록할 만한 것과 孝子·忠臣·烈女·名公碩卿의 뛰어난 자들을 모두 기록함으로써 世道를 이룩하고자 한 것이다. 즉 海域의 群生들을 흥기시키며, 이곳에 泄政하는 이들은 임금의 風勳의 化를 체득하여 邑人들로 하여금 忠孝·義烈에

58) <天嶺誌>, 鄭光淵序, 國立中央圖書館 소장.

然而變亂之屢經 風氣之寢薄陵夷 至于今彷彿乎古昔者 什無二三焉.

<天嶺誌>, 鄭秀民跋.

蓋吾東里先生 自遭丙丁禍變以來 忠孝憤傲 隱忍含默 遂托意於是志 而其文史也 其義則春秋也.

59) 상계서, 鄭光淵序.

其建置沿革標榜名目 不出勝覽大要 而於人物軌躅 獨加詳焉 孝弟忠烈隱遜高趣 尤致謹而備錄之 以至一言一行 一才一藝之在人耳目者 靡不具載 蓋非猝然朝夕之工夫而其用心亦勤矣.

60) <松都誌>, 「松都舊誌序」, 金增.

略記家國之興喪 敎化得失 人才之盛衰 古今之風俗 至若吟風咏月之作 駁雜無用之言 棄而不錄.

61) 肅宗實錄, 卷 8, 5年, 三月, 癸亥.

上命金錫胄輿地勝覽增補刊行之役 金錫胄謂以博聞強記者 出堂上二三人 郎廳八人 分掌諸道 同爲纂修 上從之 其後國家多事 因以不成

62) 承政院日記, 第1169冊, 肅宗 5年, 3月 28日.

南衰…… 今當刪去矣 如趙光祖李滉及壬辰年表表死節者 暨李舜臣權慄諸人 亦當載錄矣 以地名之遺漏者言之 廣州之南溪 卽我仁祖駐蹕處也 不可不載錄 而若表表詩文 則當俟上敕添錄矣.

63) 肅宗實錄, 卷 32, 25年, 六月, 丙午.

左議政崔錫鼎進言…… 輿地勝覽多有可考事蹟 故判書朴信圭按嶺南 今全羅監司俞得一按嶺東時 有哀集增續者 云 並兩道搜集上送 以爲續成之地爲宜 上並可之.

64) <三嘉邑誌>, 「邑誌舊序」, 李秀文, 奎章閣所藏.

고개속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⁶⁵⁾.

〈龍城誌〉에서도

“己卯年(1699年: 肅宗 25年—필자 주)에 諸路 各邑에서는 曉事者를 別擇하여 輿地勝覽을 新增하라는 朝令이 있어 士人 李燾와 崔興天이 修進하였다.”⁶⁶⁾

라고 하여 〈龍城誌〉가 南原 士族들이 中心이 되어 輿地勝覽을 新增하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대개 龍城地誌가 勝覽에 수록된 것이 오래되어 土地·物產·山川·形勝이 소략하고 상세하지 못하다. 하물며 學宮·寺社·城郭·樓亭·風俗·姓氏·儒賢行蹟·騷人題詠등에 이르러서는 어떤 것은 옛적에는 있었으나 이제는 없고, 또 어떤 것은 改修되거나 增築되어 세월이 오래됨에 바뀌게 된 것이 많다. 이에 널리 수집하고 일일이 采集하여 옛것에 因하여 增新하니 그 실린 내용이 더욱 갖추어지고 廣博하게 되었다.”⁶⁷⁾

라 하여 土地·物產·山川·形勝을 상세히 하고, 學宮·寺社·城郭·樓亭·風俗·姓氏·儒賢行蹟·題詠등의 변동사항을 상고하여 신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龍城誌〉의 내용 중에는 「鄉社堂」「鄉會」「完議」「約束條目」등이 수록되어 있어 이채롭다. 이는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對立에 관한 자료로서 17세기말에 이르러 鄉村社會 내부에 鄉權을 둘러싼 갈등이 노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龍城誌〉에는 輿地勝覽을 新增하라는 朝令을 준행하는 과정에서, 읍지 편찬을 士族들이 주도함으로써 향촌사회 내부의 분규를 士族 자신들 중심으로 재정비하려는 목적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龍城誌〉의 이러한 읍지 편찬 성격은 求禮의 읍지인 〈鳳城誌〉와 〈淳昌郡誌〉등으로 그 맥락이 이어진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조정에서는 輿地勝覽

편찬후 150여년이 지난 17世紀末에 이르러 輿地勝覽의 新增에 대한 의논이 대두되고 忠孝義烈 사상을 고취함으로써 王權과 王威를 높이고 世道の 理念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鄉村社會의 主導權을 둘러싸고 대립이 전개되는 지역의 士族들은 中央의 邑誌 편찬 命令에 참여하면서 향촌의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가려는 목적의식이 읍지 편찬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6. 結 言

本稿에서는 16~17世紀에 활발히 편찬되기 시작하는 私撰邑誌들에 대해 그 편찬 배경과 分布, 體制 및 性格등을 고찰하였다.

私撰邑誌의 편찬은 조선 전기 地理志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東國輿地勝覽〉이 統志로서 지니는 限界와 壬亂 전후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新進士林들의 개혁정치의 이념이 결합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私撰邑誌들은 분포에 있어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學脈과 地域의 결합관계는 크게 南北으로 나누어진다. 慶尙道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에서는 退溪 李滉의 文人인 南人들이 중심이 되어 읍지를 편찬하고, 경기도 이북의 海西·關西 지방에서는 梧陰 尹斗壽를 필두로 하여 畿湖西人들이 주로 읍지 편찬을 담당하였다.

私撰邑誌들은 壬亂을 전후로 하여 집중적으로 편찬되는데 이는 壬亂 이전의 土地·貢法 체계의 붕괴와 賦役의 不均衡, 刑政의 가혹함, 변경의 번극함등으로 인한 社會秩序 특히 鄉村社會의 와해라는 사회적 상황에 연유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편찬되는 私撰邑誌의 체계는 世宗代의 地理志와 〈東國輿地勝覽〉의 성격이 종합되어 경제·군사·행정적인 내용과 인

65) 상계서.

洪惟我聖上德之高明 超越百王 而萬機之暇 有此考俗觀風之舉 以備睿覽 而以興起海域群生 則實存億萬年無強之體 猶歎盛哉 噫後之莅此邦者 體聖上風動之化 使此邑之人 俛首於忠孝義烈之城 倦倦焉興感於斯 知其所自 則不特文物之煥然 庶無負我后之美意也.

66) 〈龍城誌〉, 房斗天跋.

67) 〈龍城誌〉, 房斗天跋.

물·禮俗·詩文등의 내용이 詳備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 壬亂 직후에 편찬되는 읍지들도 피폐된 향촌사회의 재건이라는 입장에서 임란 이전의 읍지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면 邑誌의 내용이 보다 다양해 진다. 즉 勝覽의 疏漏함을 극복하고자 하면서 각 지방의 독자적인 歷史地理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 士林이 지방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현양하고자 하는 것, 군사·방어적인 면에 치중하는 것, 性理學的인 이념을 향촌 통제의 수단으로 전면에서 드러내는 것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邑誌들은 전국적으로 편찬된 것은 아니었다. 읍지들을 종합하여 전국적인 지리지를 편찬하려는 시도는 17세기 말에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邑誌上送의 朝令에 따라 만들어진 이 시기의 읍지들은 人物이나 忠孝를 강조하여 王威의 顯揚을 목적으로 하였다.

肅宗朝에 볼 수 있는 읍지 편찬에 있어서의 이러한 성리학적인 이념의 강화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약화되어 읍지 편찬의 경향이 다시 전환됨을 살필 수 있다. 1760년경 <輿地圖書>에 종합된 바처럼 18세기 읍지들은 人物·詩文등의 내용이 감축되고 田結·戶口·軍器·賦稅·大同·糶糴등 경제적인 측면의 비중이 증대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16~17세기에 편찬된 읍지들과 中國 地理書들과의 관련성 및 18세기 이후의 읍지들의 성격, 그리고 實學派들의 地理書에 관한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또한 읍지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歷史時代의 地域性, 空間性의 문제는 본고에서 파악된 읍지의 맥락 하에서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Nature and Background of the County Geographies (Eupji) Published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Bo Kyung Yang*

Summary

In this study, a careful investigation was made into the background, distribution, nature and style of county geographies(邑誌) of nongovernmental issues published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Every publication was a result of the Confucianists' reform idea to overcome the social turbulence before and after the War of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to the fact that Donggookyeojiseungram(東國輿地勝覽), the so-called integration of the prevalent geography in the early Yi-Dynasty couldn't be synthesized.

Yi-whang's disciples(南人) were the principal participants in the publication of a county geography in Kyongsang province and other southern areas of the peninsula, and another Confucianist school(畿湖西人) in Whanghae and Pyoungan provinces was led by Yoon Doo

Soo.

During the age of King Sejong, geographies emphasized economic, military and administrative aspects while humanistic aspects like customs, and the arts drew emphasis in the era of King Seongjong as illustrated by Donggookyeojiseungram. Later the above-mentioned characteristics were integrated in the county geographie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 closer examination indicates they may be categorized into four distinctive types featuring:

- 1) The reconstruction of impoverished village communities from the standpoint of the unique historical geography of each county.
- 2) The promotion of the status of the Confucianists as local rulers.
- 3) An emphasis on military affairs and defenses.
- 4) The study of Human Nature(性理學) as a means of regulating the village community.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No.27, pp.51-71, 1983.

* Instructor,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